

출장복명서

중국 고령화 및 사구서비스센터의 실태

- 출장일 : 2011년 7월 27일 ~ 30일
- 출장지 : 중국 북경 (사회과학원, 사구서비스센터)
- 출장자 : 선우덕, 이은진(이상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김태완(기초보장연구실)
- 면담자 : 王 偉 실장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王士良 사구센터장 (북경시 西城구 月壇가도 汽南사구 건설협회장)

□ 출장내용

1. 중국 고령화현상 및 지역 고령자지원서비스체계의 중심인 사구 (community)시스템에 대한 의견교환
2. 북경시 西城구 月壇가도 汽南사구지역 방문 (사구센터, 경로원 등)

1. 중국 고령화현상 및 지역 고령자지원서비스체계의 중심인 사구(community)시스템

가. 중국의 고령화추이

- 중국의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도 현재 13억 3천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다시 연령계층별로 구분하여 보면, 0~14세 인구는 2억 5천만명으로 전체의 18.5%를 차지하고 있고, 15~64세인구는 9억 7,500만명으로 73.0%, 그리고 65세이상은 1억 1,300만명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음(중화인민공화국, 2010).
- 이러한 인구구성에 대해 2025년도의 추계치를 보면, 총인구는 14억4천만명이고 이 중에서 남성은 7억3천만명, 여성은 7억1천명으로 추계하고 있고, 0~14세인구는 2억 6천명으로 전체의 17.9%가 되며, 15~64세는 68.4%, 65세이상은 13.7%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UN, 2007).
- 한편, 출생성비를 보면, 2005년도의 경우, 인구1%센서스조사에서 120.49, 2008년도의 경우 120.56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체적으로 인구동태지표를 보면, 2009년 현재 조출생율은 12.1로 지난 1970년도에 비해 절반이상으로 감소하였으며, 조사망률은 7.1로 지난 1970년도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임.
- 중국의 노인인구비율을 보면, 2009년도에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이 8.5%로 나타나고 있고(중화인민공화국, 2010), 인구추계에 의하면, 2025년도에는 13.7%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리고, 중국의 고령화지수와 노인종속인구비율을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보면, 먼저 고령화지수의 경우 2007년 55.9에서 2025년 112.2로 약 2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노인부양비율은 동 기간에 11.0에서 20.0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러한 수준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 연령계층별 중국인구의 추이

	총인구 (만명)	연령계층별					
		0-14세		15-64세		65세이상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1982	101,654	34,146	33.6	62,517	61.5	4,991	4.9
1987	109,300	31,347	28.7	71,985	65.9	5,968	5.4
1990	114,333	31,659	27.7	76,306	66.7	6,368	5.6
1995	121,121	32,218	26.6	81,393	67.2	7,510	6.2
1996	122,389	32,311	26.4	82,245	67.2	7,833	6.4
1997	123,626	32,093	26.0	83,448	67.5	8,085	6.5
1998	124,761	32,064	25.7	84,338	67.6	8,359	6.7
1999	125,786	31,950	25.4	85,157	67.7	8,679	6.9
2000	126,743	29,012	22.9	88,910	70.1	8,821	7.0
2001	127,627	28,716	22.5	89,849	70.4	9,062	7.1
2002	128,453	28,774	22.4	90,302	70.3	9,377	7.3
2003	129,227	28,559	22.1	90,976	70.4	9,692	7.5
2004	129,988	27,947	21.5	92,184	70.9	9,857	7.6
2005	130,756	26,504	20.3	94,197	72.0	10,055	7.7
2006	131,448	25,961	19.8	95,068	72.3	10,419	7.9
2007	132,129	25,660	19.4	95,833	72.5	10,636	8.1
2008	132,802	25,166	19.0	96,680	72.7	10,956	8.3
2009	133,474	24,663	18.5	97,502	73.0	11,309	8.5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편), 2010 중국통계연감, 2010.

〈표 2〉 중국의 노인인구비율 전망

중국	연령	1950	1975	2007	2025	2050
전체	60+	7.5	6.9	11.4	20.1	31.0
	65+	4.5	4.4	7.9	13.7	23.6
	85+	0.3	0.6	1.2	2.2	7.2
여성	60+	8.6	7.8	12.2	21.6	33.6
	65+	5.4	5.2	8.6	15.0	26.3
	85+	0.4	0.7	1.6	2.8	9.0
남성	60+	6.4	6.1	10.6	18.7	28.4
	65+	3.6	3.7	7.1	12.4	21.0
	85+	0.2	0.5	0.9	1.6	5.5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7 참조

〈표 3〉 중국과 한국의 고령화지수

	1950	1975	2007	2025	2050
중국	22.3	17.6	55.9	112.2	197.6
한국	13.1	15.4	83.4	210.2	343.7

주: 고령화지수=(60세이상인구/15미만인구)x100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7 참조

〈표 4〉 중국과 한국의 종속인구비율

		1950	1975	2007	2025	2050
중국	전체	61.3	78.2	39.5	46.2	64.8
	청년	54.1	70.4	28.5	26.2	25.9
	노인	7.2	7.8	11.0	20.0	39.0
한국	전체	80.8	70.5	38.3	48.2	87.0
	청년	75.3	64.4	24.2	19.2	22.4
	노인	5.5	6.2	14.1	29.0	64.6

주: 종속인구비율=(65세이상인구/15~64세인구)x100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7 참조

- 또한, 장기요양과 관련할 때 참고가 되는 부모부양지수를 보면, 중국의 경우 2007년 2.8에서 4.1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한국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중국의 재가 및 지역사회에서의 장기요양지원의 환경이 우리나라보다는 양호해질 것으로 보여짐.

〈표 5〉 중국과 한국의 부모부양지수

	1950	1975	2007	2025	2050
중국	0.8	1.6	2.8	4.1	15.2
한국	18.2	16.2	7.1	3.4	1.5

주: 부모부양지수=(85세이상인구/50~64세인구)x100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7 참조

- 이러한 중국의 인구고령화는 1978년부터 시행된 개혁개방정책에 의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생활환경이나 의료조건 등이 크게 개선되어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1979년부터 실시한 강력한 계획출산정책(소위, 한자녀정책)의 여파가 컸던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나. 중국의 고령화현상의 특징

- 이러한 중국의 인구고령화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면,
 - 첫째, 고령화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노인인구비율이 7%에서 14%에 이르기까지의 소요기간을 보면, 약 27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18년)나 일본(24년)의 경우보다 느리지만, 유럽국가들에 비하면 빠른 수준임.
 - 둘째, 노인인구규모자체가 크다는 점이다. 이는 총인구자체가 많기 때문인데, 인구추계에 의하면, 2050년경에 이르면 중국의 노인인구가 전세계의 총 노인인구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셋째, 인구고령화가 국가의 경제발전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 즉, 경제발전이 불충분하고 고령자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인구고령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임.
 - 넷째,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농촌지역의 부유계층이 도시지역으로 호적을 이동시키고, 젊은 계층의 대학졸업 후 도시에 머무름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에 기인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지역에서는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이 실시되었고, 호적관리제도에 의해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억제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 도시지역의 고령화율이 상당히 높은 편임.
- 중국에서의 노인인구에 대한 증가추세를 3단계로 구분하여 예측하고 있음.
 - 제1단계는 2001~2020년간으로 고령화속도가 상승하는 시기임. 이 때에는 고령자가 매년 평균적으로 596만씩 증가하고, 연평균증가율은 3.28%로 추정하고 있음. 이는 총인구증가율의 0.66%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 제2단계는 2021~2050년간으로 고령화속도가 가속화되는 시기임. 특히 1960~ 70년대에 태어난 소위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자가 되기 때문에 노인인구의 증가가 가속화되어 매년 평균적으로 620만명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그 반면에 총인구의 증가율은 점차적으로 제로(0)로, 다시 제로(0)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데, 2023년경의 노인인구는 약 2억 7,000만명이 되어 연소인구(0~14세)와 동일한 수준까지 된다는 것임. 2050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4억명을 넘고, 그 비율도 총인구의 30%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제3단계는 2051~2100년간으로 후기고령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기임. 이 시기의 2051년에는 노인인구가 4억 3,700만명으로 정점에 이르고, 연소인구의 2배가 된다는 것임. 이에 따라 노인인구도 3~4억명 수준, 노인인구비율도 31% 수준에서 유지되고, 또한 80세이상의 후기고령자비율도 노인인구의 25~30%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2. 북경시 西城구 月壇가도 汽南사구지역 방문 (사구센터, 경로원 등)

가. 사구의 개념

- ‘사구’는 일정 지역범위내에서 주민들이 모여 조직된 사회생활의 공동체로 정의되고 있는데, 커뮤니티의 개념임. 원래, 사구는 1930년대에 중국의 사회학영역에서 등장했던 용어로 영어의 community를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생겨났음. 간단하게 말하면, 사구=community로 보면 됨. 도시지역에서는 말단조직인 가도변사처 및 거민위원회를 설치하는 기초사회단위를 의미하고 농촌지역에서는 촌민위원회와 촌민소조(小組)를 설치하는 기초사회단위를 의미하고 있음.
- 사구의 행정조직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도시와 농촌지역마다 일정치 않은데, 북경시를 예를 들면, 구(區)에 몇 개의 진(鎮)이 있고, 진에 몇 개의 사구가 지역규모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각 사구에는 인구규모에 따라 일정수의 거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형태임.

- 1993년 민정부 및 국무원소속의 14개부문이 발표한 ‘사구서비스업의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는 사구서비스가 정부지도아래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도변사처를 축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적 주민서비스업으로 명시되어 있음.
- ‘사구’라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생활지원기관으로 사구서비스센터(즉, 영어로 표현하자면, community service center)이 행정의 말단조직인 가도변사처가 설치하고 있으며, 중국정부에서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확충시켜가고 있음. 즉, 행정조직상, 사구는 우리나라 시군구의 읍면동에 해당하는 가도(街道)의 하부조직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사구의 하부조직으로는 거민(居民)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음. 여기에서 사구서비스센터는 가도마다 1개소씩 설치되어 있고, 각 사구에는 사구서비스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형태임.
- 2006년 중국국무원은 ‘장기요양서비스업의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노인복지서비스사업, 민간단체의 운영에 의한 노인서비스기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간호, 노인교육 등에 대해 각각의 내용, 대상, 운영주체 등을 제시하였음. 그 이후 사구건설과 사구서비스업무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무원은 ‘전국의 도시사구건설의 추진에 대한 의견’, ‘사구서비스활동의 강화 및 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사구주민에 대해 방문요양서비스, 생활원조, 가사원조 및 긴급구호 등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노인의 재가요양을 추진하는 환경을 정비하여 왔음.

<표 6> 중국 사구서비스시설의 유형과 현황(2009)

(단위: 개)

	사구서비스시설				주민편의망
	합계	사구서비스 센터	사구서비스 스테이션	기타 시설	
전국	174,976	10,003	53,170	111,803	692,625
Beijing	3,150	178	2,634	338	6,284
Tianjin	1,946	141	1,315	490	14,763
Hebei	5,846	188	2,819	2,839	29,722
Shanxi	2,080	176	1,393	511	28,845
Inner Mongolia	4,270	753	842	2,675	19,723
Liaoning	6,538	518	3,134	2,886	77,731
Jilin	3,205	227	433	2,545	37,784
Heilongjiang	2,722	401	1,490	831	28,309
Shanghai	20,332	145	1,744	18,443	3,563
Jiangsu	19,829	499	4,629	14,701	109,150
Zhejiang	28,507	579	2,380	25,548	73,694
Anhui	4,982	454	2,084	2,444	14,306
Fujian	2,857	386	1,197	1,274	11,417
Jiangxi	3,321	476	992	1,853	3,572
Shandong	13,620	510	3,749	9,361	61,703
Henan	3,983	440	1,050	2,493	23,777
Hubei	7,486	441	1,780	5,265	9,167
Hunan	9,633	440	1,544	7,649	46,187
Guangdong	7,641	654	3,166	3,821	10,907
Guangxi	1,218	90	667	461	4,531
Hainan	91	1	90	na	163
Chongqing	2,710	157	1,598	955	7,532
Sichuan	5,768	713	2,207	2,848	10,869
Guizhou	5,212	158	5,020	34	22,661
Yunnan	482	46	271	165	2,363
Tibet	90	28	12	50	na
Shaanxi	2,919	304	2,046	569	3,431
Gansu	1,772	235	1,502	35	7,971
Qinghai	158	112	46		1,091
Ningxia	569	114	418	37	15,935
Xinjiang	2,039	439	918	682	5,474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편), 2010 중국통계연감, 2010.

나. 月塘가도 사구서비스센터

□ 월전가도사구서비스센터는 북경시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 서성구내에 위치해 있으며, 서성구의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월전가도사구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 汽南건설협회(이는 국가기관에 해당함)
- 无圍牆재가양로시설
- 사구위생점(보건소에 해당함)
- 同心物業, 首華物業三里河스테이션
- 사구거민위원회
- 사구공작스테이션
- 월전가도 无圍牆경로원(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함)
- 可心가정방문서비스
- 법률서비스스테이션
- 기타

- 无圍牆경로원
 - 이는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는 입소시설로 와성성 고령자를 비롯하여 신체적 케어가 필요한 자를 입소, 보호하고 있음.
 - 또한, 주간보호센터 뿐만 아니라 도시락배달 등 가정봉사원서비스도 수행하고 있음.

- 사구위생스테이션
 - 이는 우리나라의 보건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시설로,

기본의료, 건강지도, 보건자문, 가정방문진료, 사구건강회복, 가족계획병상, 만성질환관리, 혈액검사, 체격검사, 한방진료, 중의치료, 침구안마, 치과진료 등을 제공하고 있음.

3. 출장후기

- 과거 국영체제에서 시장개방형으로 복지체제가 전환됨으로써, 새로운 지역중심의 복지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일명, 일정지역에 대해 행정구역을 고려하면서 인구규모 및 지역규모를 감안하여 지역공동체(社區)별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개편하였는데, 개편된 사구내 제공서비스에는 차이가 심하여 아직 발전중인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중국 북경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月壇가도사구에서는 경로원(즉, 노인요양시설)이 중심이 되어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또한, 사구내 보건기관(일종의 의료기관)과의 연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
- 다만, 각종 시설들이 비영리단체가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만, 행정(지자체)으로부터의 각종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